



관내 동향

□ 정부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확정 및 내년 개청 발표

-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등 2045년까지 정책 방향이 담긴 ‘미래 우주경제 로드맵’을 발표했다.
- 로드맵에는 ‘5년 내 달 도착 발사체 엔진 개발’, ‘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’, ‘2045년 화성에 태극기 꽂는 구상’ 등의 계획이 담겨있다.
- 윤 대통령은 ‘우주항공청’을 설립해서 로드맵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개청 준비에 착수했다.
-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5년 내 우주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신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□ 윤 대통령, KAI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

-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을 방문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었다.
-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방산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.
- 모두발언에서는 “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방산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- 또한 “정부는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산 수출이 원전, 건설 분야 등 산업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”이라며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강화, 수출 대상국 교육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, 후속 군수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.

□ KAI, 2022 항공·우주산업 파트너스 데이 개최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12월 9일 ‘2022 항공·우주산업 파트너스 데이’를 개최했다.
- 본 행사는 코로나로 3년 만에 재개된 국내 협력사 총회로 정부·지자체 관계자와 140개 협력사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.
- 행사는 KAI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과 비전, 정부 주요 정책, 현장 견학, 우수 협력사 시상 등으로 구성됐다.
- 한편 12월 13일에는 ‘2022 하반기 산학위원회 항공우주전문가 포럼’을 개최하여 기술개발과 산학협력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.
- KAI 강구영 사장은 두 행사를 통해 “6세대 전투기, 수송기 등 대형 연구 개발 사업과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협력사와 시대변화에 맞는 먹거리를 창출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□ 켄코아, ‘무역의 날’ 5대 신성장 산업분야 항공우주 대표기업 선정

-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‘제59회 무역의 날’ 기념식에서 ‘1천만불 수출의 탑’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, 무역협회장 표창 2건을 수상했다.
- 켄코아는 1년간 1,980만달러(한화 약256억원)의 수출 실적을 올려 수출 5대강국 달성을 위한 세레머니에 신성장 수출산업분야 항공우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.
- 5대 신성장 수출산업분야는 방산, 콘텐츠, 자율주행, 원전, 항공우주산업이다.
- 한편 켄코아는 여객기-화물기 개조사업(MRO) 수출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차 수주물량이 더해져 수출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또한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미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.



도내 동향

□ 경남도, 국립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위해 정부 설득

- 경남도가 ‘국립방산부품연구원’(가칭) 설립을 추진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.
- 본 연구원은 기술 자립도가 낮은 방위산업 주요 소재·부품·장비(소부장)의 국산화 연구개발(R&D)을 주도하는 기관이다.
- 이는 정부가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한데다 도내 방산기업들의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부장 부품 국산화 비중이 20% 정도로 낮아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- 이를 위해 경남도는 한국항공전략연구원과 내년 2월까지 ‘국립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경남 유치전략 연구용역’을 진행한다.
- 연구용역에는 국내 방위부품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애로사항 파악, 방위산업 관련 국책 연구 R&D 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석, 경남 유치 논리와 근거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다.

□ 2022 경남 항공우주산업 그랜드 네트워킹 성료

- 2022 경남 항공우주산업 그랜드 네트워킹이 ‘우주항공청 설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수도 경남’을 슬로건으로 거제에서 개최됐다.
- 본 행사는 경남테크노파크,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,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,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, 한국산업기술시험원, 한국세라믹기술원, 경남지역사업평가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항공우주 전문가 160여명이 참가했다.
-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항공전략연구원의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방산, 인증, 탄소중립 등 최근 항공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.
- 이 외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는 항공우주 부품·소재 분야의 상호 교류를 위한 ‘혁신네트워크 통합 협의회’를 구축하고 기관별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.

□ 경남TP, 항공MRO 인력양성 지원사업 수료식 개최

- 경남테크노파크(경남TP)가 12월 1일 경남TP 항공우주센터에서 ‘현장맞춤형 항공MRO 인력양성 지원사업’ 3기 교육생들의 수료식을 개최했다.
- 본 사업은 도내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도와 사천시의 지원으로 경남TP, 한국항공서비스, 한국폴리텍 대학 항공캠퍼스가 함께 주관했다.
- 이번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, 경남도립남해대학, 동원과학기술 대학 등 도내 5개 대학 항공정비 관련학과 재학생 32명을 선발해 한국 항공서비스와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실습 및 이론 교육을 실시했다.
- 그 중 30명이 5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으며, 내년에도 본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를 현장실무형 정비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.



국내 동향

□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

-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,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.
-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민간개방 확대,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도입,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,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- 이번 개정안은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범위와 내용도 규정했다.
- 그밖에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 완화,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구체화,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.
- 과기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발표한 ‘우주경제 로드맵’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라며 개정 내용을 토대로 민간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누리호 후속기체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예타 통과

-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기체인 ‘차세대 발사체’를 개발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.
- 과기부는 ‘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’이 총 사업비 2조13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- 새로 개발되는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대형 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될 예정으로 나로호, 누리호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했다면 차세대발사체는 사업 착수부터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공동 설계에 돌입한다.
- 기업이 설계, 제작, 조립, 시험, 발사 등 발사체 개발을 맡고 운용 전 단계에 참여해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.
-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회씩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0년에는 달 궤도 투입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해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,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, 2032년에는 달 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.

□ 국토부,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 추진

-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‘미래형 환승센터(MaaS Station)*’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.

*MaaS(통합 모빌리티 서비스, S/W)와 Station(물리적인 교통거점, H/W)의 합성어

- 미래형 환승센터(MaaS Station)는 철도·버스를 연계한 기존 환승센터에서 나아가, 도심항공교통(UAM), 자율주행차, 전기·수소차, 개인형 이동수단(PM)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것으로 이번 공모사업은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 환승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하는데 있다.



해외 동향

□ 세계 주요국, 우주 관련 예산 증액

- 유럽 우주국(ESA)의 향후 3년간 예산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17% 증액된 169억 2300만유로(23조5382억원)로 결정됐다.
- 조지프 애시배처 ESA국장은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는 산업에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기후와 지속가능성은 ESA의 최우선 순위이고 과학과 탐구는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하며 유럽 우주 기업가들이 번성하는 곳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.
- 올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‘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민간참여 현황조사’에 따르면 우주 부문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, 경제·사회 등 많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.
- 특히 중국은 2021년 41억97만달러를 투입했던 데에 비해 2021년에는 91억2500만달러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, 같은 시기 미국은 97억3200만달러에서 486억3700만달러로 투자를 늘리며 우주 경쟁을 심화시켰다.

□ 일본판 ‘스타링크’ ,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등장

- 인공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보내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통신망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통신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진입이 잇따르고 있다.
- 상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신망은 ‘비지상계 네트워크’로 불리는데 예전부터 위성 전화 등이 사용되어 왔지만 연결과정에서 지연 문제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.
-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것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‘스페이스X’의 위성 인터넷 통신 서비스 ‘스타링크’다.
- 스타링크는 고도 약550km에서 종전보다 저궤도상에 쏘아 올린 다수의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·저지연의 통신을 가능하게 했다.

- 일본 ‘라쿠텐모바일’은 미국 위성통신사가 개발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스페이스 모바일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, ‘소프트뱅크’도 성층권에 무인항공기를 띄워 직접 휴대전화와 주고받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.
- 일본 통신기업 ‘KDDI’는 스페이스X와 위성인터넷 ‘스타링크’를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.

□ 일본 에어택시, 2023년부터 베트남에서 상용화 추진

- 일본이 베트남에서 에어택시 상용화를 구체적으로 추진 중이다.
- 일본은 일본과 베트남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일본의 전기 수직이착륙기(eVTOL)를 베트남에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일본의 전기 수직이착륙 항공기 제조사 ‘스카이드라이브’와 재생에너지 회사 ‘퍼시픽’, 베트남의 국제 펀드가 업무협약을 맺어 스카이드라이브 항공기 10대를 선주문했고, 90대 추가 주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, 이 수직이착륙기가 베트남에서 상용화될 전망이다.
- 또한 ‘스카이드라이브’와 ‘퍼시픽’은 기반 시설 필요조건, 항로 및 모빌리티 네트워크 구축, 규제 등을 두루 다루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.

작성일	2022. 12. 14.(수)	보고일	2022. 12. 15.(목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최고봉(055-831-3470)